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4월 17일(월) 총 5매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 감염병 대응팀장 김선희 ☎440-7811 • 담당자 이광민 ☎440-781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엠폭스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해 신속대응방역체계 시행
- 주의에서 관심으로 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 엠폭스 신속대응 관리 -

최근 엠폭스 환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전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대응방역체계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이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한 경보 발령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인천시 신속대응방역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 사이 전국에서 5명이 엠폭스에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는 가까운 곳에 엠폭스 감염원이 있다는 것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 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오랜 기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10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두자릿수로 증가했다. 기존 환자(1~5번째)는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했거나, 이들로부터 파생된 환자였다. 그러나 지난 7일 6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해외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 추정

사례가 짧은 기간에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엠폍스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치명률은 0.13%, 중증도 1% 미만으로 유증상의심 환자와의 피부 등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다. 또 환자 대부분이 특별한 치료 없이도 2~4주 이내에 자연 회복된다. 때문에 정부는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는 엠폍스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히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을 반장으로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 등 1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신속방역대응반은, 지역사회 엠폍스 발생 시 세밀한 역학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감염원 검출 및 지정병상격리입원 조치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석철 국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엠폍스 의심환자 진료 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 며, “본인 또는 가족의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진료를 보거나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할 것” 을 당부했다.

<관련사진> 홍보물 2건

<관련자료> 1건

2023. 2. 22.

질병관리청

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

대국민용



엠폭스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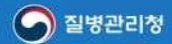
-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2023. 2. 22.



엠폍스

예방및행동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엠폍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 방문 전, 엠폍스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 동물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 엠폍스 (의심)환자와 접촉 삼가
 - 엠폍스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엠폍스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엠폍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 ✓ 엠폍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엠폍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엠폍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죽,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붙임 3 | 었폭스 질병개요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급감염병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5월 이후 었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 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됨
병원체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 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잠 복 기	• 5~21일(평균 6~13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 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뽀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유행,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었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었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진 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 1인실 격리 입원·치료 의사환자: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었폭스 백신으로 3 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었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